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278483

2020년 2월

석사학위 논문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민 지 선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Factors Influencing Self-Esteem, Problem-Solving Abilit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2020 년 2 월 25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민 지 선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현 례

이 논문을 간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9 년 10 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민 지 선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민지선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 수 김계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유재용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김현례 (인)

2019 년 11 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ABSTRACT ····· v

Ⅰ. 서론 ····· 1

A. 연구의 필요성 ····· 1

B. 연구의 목적 ····· 5

C. 용어 정의 ····· 6

Ⅱ. 연구방법 ····· 8

A. 연구 설계 ····· 8

B. 연구 대상 ····· 9

C. 연구 도구 ····· 10

D. 자료수집 방법 ····· 14

E. 자료분석 방법 ····· 15

F. 윤리적 고려 ····· 1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연구결과 ·····17

A. 일반적 특성 ·····17

B. 기술통계 ·····19

C.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 ·····21

D.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29

E.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3

Ⅳ. 논의 ·····35

Ⅴ. 결론 및 제언 ·····43

참고문헌 ·····44

부록 ·····49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 차

표 1. 일반적 특성 ····· 18
표 2.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간호전문직관, 진로정체감의 정도 ····· 20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 22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능력 차이 ····· 24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차이 ····· 26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차이 ····· 28
표 7.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간호전문직관 및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 ···· 29
표 8. 진로정체감과 문제해결능력 하위요소 간의 상관관계 ····· 31
표 9. 진로정체감과 간호전문직관 하위요소 간의 상관관계 ····· 32
표 10.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 록 목 차

부록 1. 연구 참여 설명서 ····· 49
부록 2. 연구 참여 동의서 ····· 52
부록 3. 설문지 ····· 53
부록 4. 자아존중감 척도 사용 승인서 ····· 61
부록 5. 문제해결능력 척도 사용 승인서 ····· 62
부록 6. 간호전문직관 척도 사용 승인서 ····· 63
부록 7. 진로정체감 척도 사용 승인서 ····· 6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Factors Influencing Self-Esteem, Problem-Solving Abilit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isun Min
Advisor: Prof. Hyunlye Kim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Purpose: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nursing students' self-esteem, problem-solving ability, professionalism, and career identity, and to examine the factors that affect career identity.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43 3rd and 4th grade nursing students at a 4-year university located in G area.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rom September 19 to October 1, 2019.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 t-test, an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using SPSS 24.0 program.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esteem, problem-solving ability, and professionalism. Variables tha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identity were satisfaction with major at time of admission and self-esteem. **Conclusion:** In order to improve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self-esteem, problem solving skills and professionalism. In addition, it will be helpful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and motivation for nursing science at admission.

Key words: Self-Esteem, Problem-Solving Ability, Nursing Professionalism, Career Identity, Nursing Student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Ⅰ.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전체 의료인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보건의료의 핵심 인력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보건과 관련된 정부의 시책에 비추어 볼 때, 간호사가 차지하는 인원과 보건 업무는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가진 우리나라의 간호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의 인구 1천명 당 평균 11.32명인데 비해 6.64명으로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통계를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간호사 부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실제 의료 기관에서 활동 중인 간호인력 또한 5.94명으로 OECD 국가 평균(6.93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박소영, 2018). 이와 같은 간호사 부족현상을 고려하여 2008년 이후 간호학과 신설, 입학정원 및 편입학 확대 등 정책적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규간호사 10명 중 3명은 1년 이내 조기 이직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병원간호사회, 2017).

한편 최근 대학 입시 동향을 살펴보면, 간호학과는 높은 학과 선호도 및 입학 경쟁률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국내 장기 경기불황으로 인한 청년 취업난 속에서도 높은 정규직 취업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간호대학생들이 간호교육과정 및 대학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학과 부적응의 문제를 보이고(Lee & Park, 2014), 졸업 전에 확고한 직업의식을 갖지 못한 채 졸업을 하게 된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입학 전에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대한 충분한 탐색 없이 높은 취업률에 따른 단순한 동기나 타인의 권유에 의해 간호학과를 선택하고, 간호학과 진학 후에도 간호학 전공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건강전문가로서의 확고한 직업관을 갖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정점숙, 정미조와 유일영(201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은 단순히 성적이나 취업률을 이유로 간호학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 진로정체감이 낮아 확신 없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고 차후 적성이 맞지 않아 이직할 가능성도 높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간호학과에 입학하기 전·후 진로탐색의 기회가 부족하거나 진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확신을 갖지 못하면, 졸업 후 현장에 오래 머물며 활발히 일할 수 있는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이 간호학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직업의식 및 현장 적응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진로정체감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진로정체감은 전공교육 만족도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김미원 & 박정모, 2017; 이미라 & 김미자, 2018; 정영미, 2018)으로 진로에 대한 자신의 신념 정도이며 직업에 대한 목표, 관심 및 소질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모습을 갖는 것이다(Holland & Holland, 1977).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은 간호학 전공을 선택하고, 그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명확한 확신감을 준다(이경희, 2010). 진로정체감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간호사가 된 후 간호직무수행능력 및 직업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반면에 진로정체감이 형성되지 않은 채 간호사가 되면 직업만족도는 낮으며 이직 의도가 높다(이은정 등, 2018). 또한, 자신의 진로에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 자신이 정한 진로에 상당히 뚜렷한 목표를 갖는 동시에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지니고 있다(나우열, 2018)고도 하였다. 간호대학생이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가운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로지도가 중요하다(양영옥 & 이선옥, 2012). 간호대학생에게 올바른 진로지도를 위해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진로정체감의 관련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간호전문직관 등이 보고되고 있다.

먼저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존중하며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으로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존경, 신뢰, 돌봄을 받을 때 강화된다(오지현, 2014; 이화인, 2008).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전공학문과 직업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게 되어 학업성취감을 얻고, 그 성취감은 직업적 확신과 발전을 추구할 것이므로 학생들의 정체감, 인생관, 사회적 가치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Tessema, Ready, & Yu, 2012).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므로 이는 학교 생활에 만족하며 대학생활적응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오지현, 2014) 진로정체감도 높다(Iacobucci, Daly, Lindell, & Griffin, 2013; 양영옥 & 이선옥, 2012)고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을 강화하는 것은 진로정체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진로정체감을 갖기 위한 다른 요인 중의 하나인 문제해결능력은 자신의 현재 상태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상태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차이를 유발시키는 장애물을 해소시키는 활동을 말하고, 이러한 간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적이며 창의적인 능력이다(이석재, 장유경, & 한국교육개발원, 2003). 간호대학생에게 문제해결능력은 졸업 후 임상에서 마주하게 될 다양하고 복잡한 간호 문제 상황을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이다(엄미란, 김현숙, 김은경, & 성가연, 2010). 또한 전공선택 확신과 직업적 발달과업에 대한 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Yang & Han, 2010; 안성미 & 김경희, 2018)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요인이다.

진로정체감과 관련된 또다른 요인인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의 직업 의식적 견해로서 이직률 감소와 동기부여,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영지 & 김인경, 2011). 간호사 전문직으로 발전하기 위한 의식의 시작으로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간호사로서 첫 걸음을 시작하는 간호대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박현정, 2014). 대학에서의 체계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간호전문직관이 형성된 간호대학생은 진로정체감도 높아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 및 진로준비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성지아, 방소연, & 김순이, 2012). 이를 고려해 볼 때 간호대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를 바탕으로 간호교육과정에 잘 적응하여, 간호학의 가치를 알고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고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박희숙, 최동숙, & 김효춘, 2019). 또한, 이와 함께 졸업 시 전문직 간호사로서 확신과 기대를 갖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 대상으로 2-3학년제 전문대학교 간호대학생은 짧은 기간에 기술과 지식을 익혀 취업해야 하는 환경이라서 진로정체감에 대한 요인분석의 한계가 있어(김인숙, 손민정, & 박혜경, 2017) 4년제 대학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더욱이 4년제 대학교 간호대학생 중에서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았으며(정점숙, 정미조, & 유일영, 2014), 많은 연구에서 전 학년의 진로정체감에 대해 연구하였으나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준 요인이 임상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김미원 & 박정모, 2017)였음이 보고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상의 간호학과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간호전문직관은 진로정체감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임상에서 복잡한 상황을 마주할 때 필요한 문제해결능력이라는 요인을 함께 포함하여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3가지 변인인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및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증진시키고 진로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상담과 지도 방안 마련을 위한 중재 교육의 기초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학년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간호전문직관, 진로정체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련성 및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간호전문직관 및 진로정체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간호전문직관 및 진로정체감의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간호전문직관 및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 용어 정의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신에 대한 평가적 개념으로 자신에 대한 느낌, 감정, 동기 등이 개인의 심리현상 속에서 수용되고 조직화되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Rosenberg, 1965).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self-esteem scale)를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2.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Problem-solving ability)은 주어진 상황을 탐색한 후, 체계적인 단계에 따라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며, 많은 수의 대안들을 파생시킬 수 있는 능력과 각각의 대안들이 가져올 결과를 최대화하고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선택하는 능력을 포함한다(Heppner & Krauskopf, 1987).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이석재 등, 2003)에서 개발한 생애 능력 측정 도구 중 대학생/성인용 문제해결능력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Nursing professionalism)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와 간호사에 대한 신념, 관념 및 인상의 총합으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자의 간호활동 과정이나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 의식적인 견해이다(윤은자, 권영미, & 안옥희, 2005). 본 연구에서는 윤은자 등(2005)이 개발한 간호전문직관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4.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Career identity)은 진로에 대한 자신의 신념 정도를 말하며 직업에 대한 목표, 관심 및 소질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Holland & Holland, 1977). 본 연구에서는 Holland, Daiger 와 Power(1980)가 개발한 진로상황검사(My Vocational Situation, MVS)의 하위 척도인 정체감 척도 18 문항을 김봉환과 김윤희(1997)가 한국 상황에 맞게 번안하고, 권윤희(2002)가 한국 간호대학생에 맞게 수정 보완한 14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Ⅱ. 연구방법

A.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간호전문직관 및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횡단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G 광역시에 소재하는 4 년제 일개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3, 4 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2)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위한 효과크기 .15(중간 효과), 유의수준(α) .05, 통계적 검정력($1-\beta$) .90, 예측변인 8 개의 조건으로 계산했을 때, 본 연구에 필요한 최소 대상자 수는 136 명으로 산출되었다. 회수된 146 부 중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성실하지 못 한 설문지 3 부를 제외한 총 143 부를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 연구 도구

1.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self-esteem scale)를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3, 5, 8, 9, 10번 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훈진과 원호택(199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85 였으며(이훈진 & 원호택, 1995),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4 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문제해결능력

한국교육개발원(이석재 등, 2003)에서 개발한 생애 능력 측정 도구 중 대학생/성인용 문제해결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문제의 명료화(5 문항), 원인분석(10 문항), 대안개발(10 문항), 계획/실행(10 문항), 수행평가(10 문항)의 총 5개 능력요소로 구성되고, 이는 다시 9개 하위요소로 구분되어 있다. 능력요소별 하위요소는 문제의 명료화-문제인식(5 문항), 원인분석-정보수집(5 문항), 분석능력(5 문항), 대안개발-확산적 사고(5 문항), 의사결정(5 문항), 계획/실행-기획력(5 문항), 실행과 모험감수(5 문항), 수행평가-평가(5 문항) 그리고 피드백(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45 문항이다. 문항은 1 점 '매우 드물게'에서 5 점 매우 자주'의 Likert 5 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94 였으며(이석재 등, 2003),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91 이었다. 개발 당시 하부영역별 Cronbach's α=.63 ~ .7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하부영역별 Cronbach's α=.58 ~ .81 이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윤은자 등(2005)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전문직 자아개념 9 문항, 사회적 인식 8 문항, 간호의 전문성 5 문항, 간호실무역할 4 문항, 간호의 독자성 3 문항의 5 개 영역, 총 29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 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 점 '매우 그렇다'의 Likert 5 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16 번, 20 번, 24 번 문항은 역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윤은자 등(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2 였으며(윤은자 등, 2005),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9 였다. 개발 당시 하부영역별 Cronbach's α=.53 ~ .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하부영역별 Cronbach's α=.46 ~ .83 이었다.

4. 진로정체감

Holland(1980) 등이 개발한 진로상황검사(My Vocational Situation, MVS)의 하위척도인 정체감 척도 18 문항을 김봉환(1997)이 한국 상황에 맞게 번안하고, 권윤희(2002)가 한국 간호대학생에 맞게 수정 보완한 14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1 점 '매우 그렇다'에서 4 점 '전혀 그렇지 않다'의 Likert 4 점 척도로, 점수는 6 번 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역 환산하여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권윤희(200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8 이었으며(권윤희 & 김정남, 2002),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7 이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간호전문직관 및 진로정체감 관련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성별, 학년, 종교), 대학생활관련 특성(진학동기, 대학생활 만족도, 입학 시 전공만족도, 현재 전공만족도, 주관적 학업성취도)과 진로방향(졸업 후 희망 진로)을 포함한 10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D.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9 년 9 월 19 일부터 10 월 1 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 장소는 G 광역시 소재 일개 대학에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시 본 연구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에게 연구 설명문, 동의서와 설문지가 함께 들어있는 봉투를 주어 자기기입 식의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15-20 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설문지 작성 후 설문지와 동의서를 밀봉된 개인용 봉투에 넣어 회수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E.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간호전문직관 및 진로정체감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간호전문직관, 진로정체감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를 통해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éffe test 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간호전문직관,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으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검정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F.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해 2019 년 C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 승인을 받은 후(2-1041055-AB-N-01-2019-35)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전에 간호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협조를 구한 후 동의를 받았다. 설문조사 시작 전 본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 연구 결과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유지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고 본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불이익 없이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대상자들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수집된 자료를 암호화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연구자의 개인 컴퓨터에 연구대상자의 실명이 아닌 임의의 연구 대상자 번호를 부여하였다. 연구자료 등 관련된 모든 서류는 암호화하여 통계 처리하여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연구 종료 후 연구 관련 자료는 3 년간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연구결과

A.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84±1.24세로 여성 118명(82.5%), 남성 25명(17.5%) 이었으며, 3학년이 81명(56.6%), 4학년이 62명(43.4%)이었다. 대상자의 종교는 무교가 94명(66.2%)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기독교 36명(25.4%)이었다. 간호학과로의 진학동기는 '취직이 잘 되어서'가 68명(46.2%)으로 가장 많았고, '성적에 맞추어서' 30명(20.4%), '흥미 또는 적성에 맞아서' 29명(19.7%)순이었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보통이다'가 68명(47.5%), '만족한다'가 58명(40.6%)이었다. 입학 시 전공만족도는 '보통이다'와 '만족한다'가 각각 70명(48.9%), 59명(41.3%)이었으며, 현재 전공만족도는 '보통이다'가 73명(51.0%), '만족한다'가 57명(39.9%)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학업성취도는 '중'이 93명(65.0%)으로 가장 많았으며, 졸업 후 희망 진로는 종합병원이 110명(75.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표 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 일반적 특성 (N=143)

변수 (M±SD)	범주	n (%)
연령 (21.84±1.24)		
성별	여성	118 (82.5)
	남성	25 (17.5)
학년	3학년	81 (56.6)
	4학년	62 (43.4)
종교* (n=142)	기독교	36 (25.4)
	천주교	9 (6.3)
	불교	3 (2.1)
	무교	94 (66.2)
진학동기**	취직이 잘 되어서	68 (46.2)
	성적에 맞추어서	30 (20.4)
	타인의 권유	8 (5.5)
	가족의 희망	8 (5.5)
	흥미 또는 적성에 맞아서	29 (19.7)
	기타	4 (2.7)
대학생활 만족도	만족한다	58 (40.6)
	보통이다	68 (47.5)
	불만족한다	17 (11.9)
입학 시 전공만족도	만족한다	59 (41.3)
	보통이다	70 (48.9)
	불만족한다	14 (9.8)
현재 전공만족도	만족한다	57 (39.9)
	보통이다	73 (51.0)
	불만족한다	13 (9.1)
주관적 학업성취도	상	29 (20.3)
	중	93 (65.0)
	하	21 (14.7)
졸업 후 희망 진로**	종합병원	110 (75.3)
	공무원	27 (18.5)
	보건교사	3 (2.1)
	해외취업	4 (2.7)
	기타	2 (1.4)

*무응답 제외; **중복응답 포함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 기술통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간호전문직관 및 진로정체감 정도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69±0.57점이었다.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53±0.03점이었다. 하부영역별 점수를 보면 의사결정에 대한 점수가 3.81±0.0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확산적 사고에 대한 점수가 3.07±0.04점으로 가장 낮았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58±0.04점으로 나타났으며, 하부영역별 점수를 보면 간호 실무 역할이 3.86±0.04점으로 가장 높았고, 간호의 독자성과 사회적 인식이 3.25±0.07점, 3.25±0.0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점수는 4점 만점에 평균 2.60±0.05점이었다(표 2).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2>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간호전문직관, 진로정체감의 정도 (N=143)

변수	M±SD	Minimum	Maximum	Range
자아존중감	3.69±0.57	1.5	5.0	1−5
문제해결능력	3.53±0.03	2.1	4.6	
문제인식	3.74±0.04	2.6	5.0	
정보수집	3.42±0.05	2.4	5.0	
분석	3.77±0.05	1.8	5.0	
확산적 사고	3.07±0.04	1.8	4.4	
의사결정	3.81±0.05	2.6	5.0	1−5
기획력	3.48±0.06	1.0	5.0	
실행과 모험감수	3.22±0.05	1.2	5.0	
평가	3.58±0.04	2.4	5.0	
피드백	3.68±0.05	2.0	5.0	
간호전문직관	3.58±0.04	2.2	4.7	
전문직 자아개념	3.72±0.04	2.7	5.0	
사회적 인식	3.25±0.05	1.1	4.8	
간호의 전문성	3.84±0.04	2.6	5.0	1−5
간호 실무 역할	3.86±0.04	2.0	5.0	
간호의 독자성	3.25±0.07	1.0	5.0	
진로정체감	2.60±0.05	1.4	3.8	1−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을 살펴보면, 여성(3.75±0.67)이 남성(3.40±0.68)보다 높았으며(t=2.36, p=.018), 4학년(4.02±0.63)이 3학년(3.43±0.61)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5.63, p<.001). 대학생활 만족도(F=16.92, p<.001), 입학 시 전공만족도(F=14.30, p<.001), 현재 전공만족도(F=12.07, p<.001)와 주관적 학업성취도(F=14.29, p<.001)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한 결과, 대학생활 만족도에 ‘만족한다(4.04±0.59)’고 한 대상자가 ‘보통이다(3.49±0.61)’와 ‘불만족한다(3.26±0.70)’고 답한 대상자보다 높았다. 입학 시 전공만족도에 ‘만족한다(4.02±0.58)’가 ‘보통이다(3.47±0.66)’와 ‘불만족한다(3.36±0.62)’보다 높았고, 현재 전공만족도 또한 ‘만족한다(3.97±0.60)’가 ‘보통이다(3.57±0.65)’, ‘불만족한다(3.12±0.71)’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학업성취도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상(4.17±0.61)’이라고 대답한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이 ‘중(3.64±0.59)’보다 높았고, ‘하(3.24±0.79)’가 가장 낮았다(표 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N=143)

변수	범주	n (%)	M±SD	F/t	*p* (Schéffe test)
성별	여성	118 (82.5)	3.75±0.67	2.36	.018
	남성	25 (17.5)	3.40±0.68		
학년	3학년	81 (56.6)	3.43±0.61	−5.63	<.001
	4학년	62 (43.4)	4.02±0.63		
종교 (n=142)	기독교	36 (25.4)	3.83±0.67	0.90	.466
	천주교	9 (6.3)	3.73±0.84		
	불교	3 (2.1)	3.43±0.61		
	무교	94 (66.2)	3.65±0.67		
대학생활 만족도	만족한다[a]	58 (40.6)	4.04±0.59	16.92	<.001 (a>b, c)
	보통이다[b]	68 (47.5)	3.49±0.61		
	불만족한다[c]	17 (11.9)	3.26±0.70		
입학 시 전공만족도	만족한다[a]	59 (41.3)	4.02±0.58	14.30	<.001 (a>b, c)
	보통이다[b]	70 (48.9)	3.47±0.66		
	불만족한다[c]	14 (9.8)	3.36±0.62		
현재 전공만족도	만족한다[a]	57 (39.9)	3.97±0.60	12.07	<.001 (a>b, c)
	보통이다[b]	73 (51.0)	3.57±0.65		
	불만족한다[c]	13 (9.1)	3.12±0.71		
주관적 학업성취도	상[a]	29 (20.3)	4.17±0.61	14.29	<.001 (a>b>c)
	중[b]	93 (65.0)	3.64±0.59		
	하[c]	21 (14.7)	3.24±0.79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을 살펴보면, 여성(3.56±0.37)이 남성(3.39±0.39)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t=2.02, p=0.46), 대학생활 만족도(F=13.34, p<.001), 입학 시 전공만족도(F=7.43, p=.001), 현재 전공만족도(F=9.81, p<.001), 주관적 학업성취도(F=8.16,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추가로 사후검정한 결과, 대학생활 만족도에 '만족한다(3.70±0.37)'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보통이다(3.46±0.33)'와 '불만족한다(3.25±0.41)'에 응답한 대상자보다 문제해결능력이 높았다. 입학 시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3.67±0.33)'가 '보통이다(3.42±0.39)' 보다 높았으며, 현재 전공만족도에 '만족한다(3.69±0.33)'가 '보통이다(3.44±0.36)', '불만족한다(3.32±0.48)' 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학업성취도는 '하(3.28±0.42)'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이 '상(3.70±0.31)'과 '중(3.54±0.37)'인 경우보다 낮았다(표 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능력 차이 (N=143)

변수	범주	n (%)	M±SD	F/t	*p* (Schéffe test)
성별	여성	118 (82.5)	3.56±0.37	2.02	.046
	남성	25 (17.5)	3.39±0.39		
학년	3학년	81 (56.6)	3.48±0.38	−1.84	.067
	4학년	62 (43.4)	3.60±0.37		
종교 (n=142)	기독교	36 (25.4)	3.55±0.38	0.56	.691
	천주교	9 (6.3)	3.64±0.45		
	불교	3 (2.1)	3.30±0.24		
	무교	94 (66.2)	3.52±0.38		
대학생활 만족도	만족한다[a]	58 (40.6)	3.70±0.37	13.34	<.001 (a>b, c)
	보통이다[b]	68 (47.5)	3.46±0.33		
	불만족한다[c]	17 (11.9)	3.25±0.41		
입학 시 전공만족도	만족한다[a]	59 (41.3)	3.67±0.33	7.43	.001 (a>b)
	보통이다[b]	70 (48.9)	3.42±0.39		
	불만족한다[c]	14 (9.8)	3.50±0.37		
현재 전공만족도	만족한다[a]	57 (39.9)	3.69±0.33	9.81	<.001 (a>b, c)
	보통이다[b]	73 (51.0)	3.44±0.36		
	불만족한다[c]	13 (9.1)	3.32±0.48		
주관적 학업성취도	상[a]	29 (20.3)	3.70±0.31	8.16	<.001 (a, b>c)
	중[b]	93 (65.0)	3.54±0.37		
	하[c]	21 (14.7)	3.28±0.42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을 살펴보면, 4학년(3.70±0.45)이 3학년(3.49±0.40)보다 높았으며(t=−2.96, p=.004), 대학생활 만족도(F=9.92, p=.001), 입학 시 전공만족도(F=6.34, p=.002), 현재 전공만족도(F=10.18, p<.001), 주관적 학업성취도(F=9.93,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추가로 사후검정한 결과 대학생활 만족도에 ‘만족한다(3.76±0.44)’고 대답한 대상자가 ‘보통이다(3.50±0.41)’, ‘불만족한다(3.32±0.29)’고 대답한 대상자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았다. 입학 시 전공만족도에 ‘만족한다(3.72±0.47)’가 ‘보통이다(3.51±0.38)’, ‘불만족한다(3.36±0.41)’보다 높았고, 현재 전공만족도 또한 ‘만족한다(3.75±0.44)’가 ‘보통이다(3.52±0.40)’, ‘불만족한다(3.24±0.30)’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학업성취도가 ‘상(3.84±0.36)’인 경우가 ‘중(3.56±0.43)’과 ‘하(3.33±0.38)’인 경우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았다(표 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차이 (N=143)

변수	범주	n (%)	M±SD	F/t	*p* (Schéffe test)
성별	여성	118 (82.5)	3.61±0.44	1.86	.065
	남성	25 (17.5)	3.44±0.37		
학년	3학년	81 (56.6)	3.49±0.40	−2.96	.004
	4학년	62 (43.4)	3.70±0.45		
종교 (n=142)	기독교	36 (25.4)	3.64±0.44	0.34	.848
	천주교	9 (6.3)	3.56±0.52		
	불교	3 (2.1)	3.45±0.51		
	무교	94 (66.2)	3.57±0.43		
대학생활 만족도	만족한다[a]	58 (40.6)	3.76±0.44	9.92	.001 (a>b, c)
	보통이다[b]	68 (47.5)	3.50±0.41		
	불만족한다[c]	17 (11.9)	3.32±0.29		
입학 시 전공만족도	만족한다[a]	59 (41.3)	3.72±0.47	6.34	.002 (a>b, c)
	보통이다[b]	70 (48.9)	3.51±0.38		
	불만족한다[c]	14 (9.8)	3.36±0.41		
현재 전공만족도	만족한다[a]	57 (39.9)	3.75±0.44	10.18	<.001 (a>b, c)
	보통이다[b]	73 (51.0)	3.52±0.40		
	불만족한다[c]	13 (9.1)	3.24±0.30		
주관적 학업성취도	상[a]	29 (20.3)	3.84±0.36	9.93	<.001 (a>b, c)
	중[b]	93 (65.0)	3.56±0.43		
	하[c]	21 (14.7)	3.33±0.3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을 살펴보면, 4학년(2.78±0.53)이 3학년(2.47±0.51)보다 높았고(t=−3.54, p=.001), 대학생활 만족도(F=11.71, p<.001), 입학 시 전공만족도(F=19.48, p<.001), 현재 전공만족도(F=13.55, p<.001), 주관적 학업성취도(F=8.48,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추가로 사후검정한 결과 대학생활 만족도에 '만족한다(2.84±0.55)' 고 응답한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이 '보통이다(2.47±0.45)', '불만족한다(2.32±0.53)' 보다 높았다. 입학 시 전공만족도에 '만족한다(2.90±0.49)' 가 '보통이다(2.43±0.42)', '불만족한다(2.24±0.68)' 보다 높았으며, 현재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2.81±0.54)', '보통이다(2.54±0.46)', '불만족한다(2.05±0.53)'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학업성취도는 '상(2.85±0.42)' 과 '중(2.61±0.51)' 으로 응답한 경우의 진로정체감이 '하(2.24±0.62)' 로 응답한 경우보다 높았다(표 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차이 (N=143)

변수	범주	n (%)	M±SD	F/t	*p* (Schéffe test)
성별	여성	118 (82.5)	2.64±0.55	1.83	.070
	남성	25 (17.5)	2.43±0.48		
학년	3학년	81 (56.6)	2.47±0.51	−3.54	.001
	4학년	62 (43.4)	2.78±0.53		
종교 (n=142)	기독교	36 (25.2)	2.54±0.54	0.67	.617
	천주교	9 (6.3)	2.75±0.67		
	불교	3 (2.1)	2.38±0.18		
	무교	94 (65.7)	2.63±0.53		
대학생활 만족도	만족한다[a]	58 (40.6)	2.84±0.55	11.71	<.001 (a>b, c)
	보통이다[b]	68 (47.6)	2.47±0.45		
	불만족한다[c]	17 (11.9)	2.32±0.53		
입학 시 전공만족도	만족한다[a]	59 (41.3)	2.90±0.49	19.48	<.001 (a>b, c)
	보통이다[b]	70 (49.0)	2.43±0.42		
	불만족한다[c]	14 (9.8)	2.24±0.68		
현재 전공만족도	만족한다[a]	57 (39.9)	2.81±0.54	13.55	<.001 (a>b>c)
	보통이다[b]	73 (51.0)	2.54±0.46		
	불만족한다[c]	13 (9.1)	2.05±0.53		
주관적 학업성취도	상[a]	29 (20.3)	2.85±0.42	8.48	<.001 (a, b>c)
	중[b]	93 (65.0)	2.61±0.51		
	하[c]	21 (14.7)	2.24±0.62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D.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문제해결능력, 간호전문직관 및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은 자아존중감(r=.44, *p*<.001), 문제해결능력(r=.24, *p*=.004), 간호전문직관(r=.18, *p*=.033)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자아존중감(r=.31, *p*<.001), 문제해결능력(r=.33,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은 자아존중감(r=.43,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표 7).

<표 7>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간호전문직관 및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 (N=143)

변수	1	2	3	4
	r(*p*)			
1. 자아존중감	1	.43(<.001)	.31(<.001)	.44(<.001)
2. 문제해결능력		1	.33(<.001)	.24(.004)
3. 간호전문직관			1	.18(.033)
4. 진로정체감				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대상자의 진로정체감과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은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소 중 분석(r=.23, p=.005), 실행과 모험감수(r=.35, p<.001), 평가(r=.19, p=.020), 그리고 피드백(r=.28,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표 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8> 진로정체감과 문제해결능력 하위요소 간의 상관관계 (N=143)

변수	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
						r(*p*)					
1. 문제해결능력	1	.69 (<.001)	.37 (<.001)	.79 (<.001)	.57 (<.001)	.81 (<.001)	.68 (<.001)	.68 (<.001)	.72 (<.001)	.76 (<.001)	.24 (.004)
1-1. 문제인식		1	.37 (.040)	.49 (<.001)	.279 (.001)	.54 (<.001)	.28 (.001)	.37 (<.001)	.50 (<.001)	.51 (<.001)	.08 (.362)
1-2. 정보수집			1	.23 (.006)	.08 (.370)	.22 (.007)	.15 (.076)	.04 (.614)	.07 (.421)	.16 (.055)	-.10 (.229)
1-3. 분석				1	.43 (<.001)	.63 (<.001)	.46 (<.001)	.46 (<.001)	.48 (<.001)	.58 (<.001)	.23 (.005)
1-4. 확산적 사고					1	.37 (<.001)	.31 (.001)	.40 (<.001)	.35 (<.001)	.30 (<.001)	.12 (.149)
1-5. 의사결정						1	.58 (<.001)	.47 (<.001)	.55 (<.001)	.57 (<.001)	.15 (.071)
1-6. 기획력							1	.37 (<.001)	.39 (<.001)	.41 (<.001)	.13 (.121)
1-7. 실행과 모험감수								1	.55 (<.001)	.50 (<.001)	.35 (<.001)
1-8. 평가									1	.59 (<.001)	.19 (.020)
1-9. 피드백										1	.28 (.001)
2. 진로정체감											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대상자의 진로정체감과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은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요소 중 전문직 자아개념(r=.18, *p*=.030), 간호의 독자성(r=.20, *p*=.017)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표 9).

<표 9> 진로정체감과 간호전문직관 하위요소 간의 상관관계 (N=143)

변수	1	1-1	1-2	1-3	1-4	1-5	2
	r(*p*)						
1. 간호전문직관	1	.89 (<.001)	.86 (<.001)	.80 (<.001)	.81 (<.001)	.37 (<.001)	.18 (.033)
1-1. 전문직 자아개념		1	.66 (<.001)	.70 (<.001)	.69 (<.001)	.20 (.018)	.18 (.030)
1-2. 사회적 인식			1	.57 (<.001)	.62 (<.001)	.14 (.091)	.13 (.132)
1-3. 간호의 전문성				1	.70 (<.001)	.16 (.061)	.07 (.394)
1-4. 간호실무역할					1	.18 (.034)	.08 (.335)
1-5. 간호의 독자성						1	.20 (.017)
2. 진로정체감							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E.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에는 단일변량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학년, 대학생활 만족도, 입학 시 전공만족도, 현재 전공만족도, 주관적 학업성취도와 규명하고자 한 독립변인인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간호전문직관을 투입하였다. 범주형 독립변수인 학년, 대학생활만족도, 입학 시 전공만족도, 현재 전공만족도, 주관적 학업성취도는 가변수 처리를 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검토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은 1.752로 오차의 자기상관이 없었고, 공차한계는 .43~.81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0이하인 1.24~2.31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없었다. Cook's distance를 이용하여 영향력 분석을 한 결과 1.0 이상인 값은 없었으며, 잔차분석에서 모형의 선형성, 오차의 정규성, 등분산성의 가정을 만족하였다. 회귀분석의 모형적합도는 유의하였으며($F=7.12$, $p<.001$) 진로정체감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은 25.6%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입학 시 전공만족도(만족한다 $\beta=.317$, $p=.002$)와 자아존중감($\beta=.238$, $p=.013$)으로 확인되었다(표 1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0>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143)

Variables	B	SE	β	t	p
상수	1.753	.480		3.65	<.001
학년† 4학년	0.110	.089	.101	1.24	.218
대학생활만족도† 만족한다	0.108	.115	.99	0.94	.348
입학 시 전공만족도† 만족한다	0.346	.111	.317	3.12	.002
현재 전공만족도† 만족한다	−0.076	.121	−.069	−0.63	.532
주관적 학업성취도† 상	0.041	.108	.031	0.38	.703
자아존중감	0.188	.075	.238	2.51	.013
문제해결능력	0.026	.119	.018	0.22	.829
간호전문직관	−0.041	.101	−.033	−0.40	.687
R^2= .298, Adj R^2=.256, F=7.12, p<.001					

†기준 집단. 학년: 3학년; 대학생활만족도, 입학 시 전공만족도, 현재 전공만족도: 만족하지 않는다; 주관적 학업성취도: 중+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증진시키고, 진로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상담과 지도 방안 마련을 위한 교육적 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실시되었다. 진로정체감과 관련요인에 관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5점 만점에 3.69±0.57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전문대 간호대학생 전 학년에게 같은 도구를 사용한 기존 연구(양혜주, 2013)의 3.69±0.55점과 유사하였으며, 간호대학생 2~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양선이, 2016)의 3.40±0.57점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총점은 36.87±0.57점으로 간호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서양권 연구의 33.04±4.27점(총점)보다 높게 나타났다(Iacobucci 등, 2013).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학교생활에 만족을 느끼며(오지현, 2014), 전공만족도도 높다(양영옥 & 이선옥, 2012). 이러한 결과에 근거할 때 교육과정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전공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높여 간호사가 되기 위한 진로 정체성의 확립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은 3.53±0.03점으로 간호대학생 2~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안성미 & 김경희, 2018)의 3.56점과 유사하였으며, 간호대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곽혜원, 2018)의 3.28점보다 높았다.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은 학교생활에서 교과학습과 학교생활적응에서 훈련되고 성숙되는 부분이며 충분한 전공지식의 축적, 원만한 교우관계 유지, 전공만족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및 임상실습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양혜주, 2013). 높은 문제해결능력은 숙련된 간호행위와 의사소통으로 전문적인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따라서 간호교육과정은 지식 축적 목적의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문제해결 중심의 교수설계 및 교수학습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은 3.58±0.04점으로 4학년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창희 & 김정이, 2019)의 3.60±0.45점과 유사하였으며, 3년제 간호대학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성지아 등, 2012)의 3.76±0.45점보다 약간 낮았다.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의 하부영역을 보면 간호실무역할과 간호의 전문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성지아 등, 2012)에서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간호의 독자성의 점수가 가장 낮아 다른 선행연구(함연숙, 김화순, 조인숙, & 임지영, 2011)에서 가장 점수가 높았던 것과 상반되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이 간호사가 되어 전문직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간호를 수행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간호사로서 첫 걸음을 시작하는 간호대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에 간호교육기관은 간호대학생들의 간호학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들이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직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진로정체감은 2.60±0.05점으로 4년제 간호학과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양영옥 & 이선옥, 2012)의 2.69±0.55점과 4년제 간호학과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2.57±0.44점과 유사하였다(하주영, 2012). 이는 양영옥 등(2012)의 연구에서 간호학과를 스스로 선택하여 입학한 경우 진로정체감이 높다는 결과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는 진학 동기의 대다수가 취업과 성적을 고려하여 ('취직이 잘 되어서' 46.2%, '성적에 맞추어서' 20.4%) 간호학과를 선택하였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단순히 성적이나 부모님 권유에 의해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은 진로결정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 정도가 낮으며, 진로선택에 있어 명확한 확신 없이 직업을 선택하고 차후 적성이 맞지 않아 이직할 가능성이 높다(정점숙 등, 2014). 자신의 학업경험을 미래 직업과 함께 연결 지어 진로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은 간호대학생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정영미, 2018).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간호사로서 역할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확고한 진로정체감을 정립해주는 것이 필요하다(성지아 등, 201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성별, 학년, 대학생활 만족도, 입학 시 전공만족도, 현재 전공만족도, 주관적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자아존중감은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김영희 & 권영채, 2018; 양선이, 2016), 남녀 간의 차이가 없는(양영옥 & 이선옥, 2012; 오지현, 2014)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3학년보다 4학년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학년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김영희 & 권영채, 2018)는 선행연구를 지지했다.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나 대학생활 적응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했는데(오지현, 2014), 이는 대학생활은 중, 고등학교때와 다른 학교생활방식을 통해 새로운 대인관계를 구축하고, 전공과목을 심층적으로 배우는 단계에 있는 시기로서 새로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만족한 대학생들이 성취감을 느껴 자아존중감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입학 시 전공만족도와 현재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전공만족도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김영희 & 권영채, 2018; 양영옥 & 이선옥, 2012)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본인이 선택한 간호학과로의 진학을 통해 입학 시 간호대학생 자신에게 성취감을 안겨주었다고 생각되며, 현재에도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있어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 또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높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결과(김영희 & 권영채, 2018; 양선이, 2016; 양영옥 & 이선옥, 2012; 오지현, 2014)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 전략이 필요한데,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및 전공과 관련된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인별 지도 및 상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의 차이는 성별, 대학생활 만족도, 입학 시 전공만족도, 현재 전공만족도, 주관적 학업성취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여성의 문제해결능력이 남성보다 높다고 나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안성미 & 김경희, 2018)는 선행연구결과와 남녀 간의 차이가 없다(곽혜원, 2018)고 나타난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 만족도와 입학 시 전공만족도, 현재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다고 나타났으나 선행연구(곽혜원, 2018)에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다는 결과는 선행연구결과(안성미 & 김경희, 2018)와 일치하였으며, 학습 태도와 자기주도 학습 준비가 문제해결능력과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결과(Luo, Zhang, Zhang, & Liu, 2019)를 지지했다. 이는 간호대학생이 전공과목을 심도 있게 배우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습득하는 방법을 터득하며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학년, 대학생활 만족도, 입학 시 전공만족도, 현재 전공만족도, 주관적 학업성취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있었다. 본 연구에서 4학년의 간호전문직관이 3학년보다 높아 학년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선행연구결과(성지아 등, 2012)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기간을 4학년의 취업이 결정된 이후에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본 연구의 4학년 간호대학생이 간호사에 대한 견해 및 관념이 확고하게 형성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입학 시 전공만족도와 현재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높다고 나타나 박현정(박현정, 201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으나, 전공만족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다(박희숙 등, 2019)는 선행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두 선행연구 모두 입학 시 전공만족도와 현재 전공만족도를 나누어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반복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다고 나타나 성적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성지아 등, 2012)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학업성취도의 측정 방법과 관련될 수 있는데, 주관적인 학업성취도와 실제 성적 수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할 때 객관적인, 주관적인 자료를 모두 고려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인 간호학 세미나나 선배간호사의 만남과 같은 교과 외 중재 방안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학년, 대학생활 만족도, 입학 시 전공만족도, 현재 전공만족도 및 주관적 학업성취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년에서는 4학년이 3학년보다 진로정체감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진로정체감은 간호전공과목과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기 확신 정도가 높아지므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진다(성지아 등, 2012; 하주영, 2012)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유의하게 높다는 결과는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수록 간호사로서의 직업정체성이 높다는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선행연구결과(이미라 & 김미자, 2018)를 지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입학할 시기부터 소속대학 및 간호학과와 관련된 대학생활에 만족감을 가지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간호사로서의 진로정체감을 확립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입학 시 전공만족도 및 현재 전공만족도 또한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 전공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미원 & 박정모, 2017; 정영미, 2018; 정점숙 등, 2014; 하주영, 2012)를 뒷받침하고 있다. 진로정체감은 간호학에 대한 전공확신과 관련이 있어 입시 과정에서의 대학선택과 그에 따른 만족도가 영향을 미친다(하주영, 2012). 입학과 동시에 정해진 진로방향에 있어 본인의 적성과 맞지 않고, 임상실습을 포함한 전공만족도가 낮은 경우, 졸업 후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정체성 없이 취업의 길로 들어서게 되며 이는 쉽게 이직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정영미, 2018; 정점숙 등, 2014). 따라서 진로에 대한 확신 없이 입학한 학생들에게 간호학 전공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예비 간호사로서 정체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진로정체감은 주관적 학업성취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명확한 학습전략을 세우고 학업적인 자기 효능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했다(김미원 & 박정모, 2017; 박연옥, 박수진, & 허정, 2017; 정점숙 등, 2014). 이렇듯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은 학년과 간호학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만족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학에 대한 견해를 형성하고 간호사로서의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학년별 지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진로정체감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간호전문직관 및 진로정체감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및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자아존중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감과 진로정체감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 연구결과(양영옥 & 이선옥, 2012)를 통해 지지되었다. 뿐 만 아니라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정체감이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박희숙 등, 2019; 성지아 등, 2012)들의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나타났다. 즉,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자기 평가, 주어진 문제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자신이 생각하는 간호에 대한 직업적 소견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 및 명확한 모습을 형성시키기 위해 학과차원에서 간호대학생 개개인의 자아존중감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가지 간호상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는 방법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예비간호사로서 간호사에 대한 올바른 신념을 갖게 하는 세미나 주최 및 먼저 간호사가 된 선배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간호학과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교육 요구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른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과 상담지도방안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입학 시 전공만족도와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5.6%였다. 진로정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입학 시 전공만족도였다. 간호대학생은 이론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는 교과과정을 통해 간호사로서 수행하는 역할을 재학 중에 경험하게 되는데, 만약 간호대학생이 입학과 함께 정해진 진로선택에 있어 본인의 적성과 맞지 않을 경우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명확한 확신 없이 취업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정영미, 2018).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도 높다는 연구결과(양영옥 & 이선옥, 2012)를 토대로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신념 정도가 높아 직업에 대한 목표, 관심 및 소질이 명확하고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입학 시 전공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가장 중요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요인으로 나타나 진학학과를 선택하기 전 고등학교에서 간호학 전공에 대한 홍보 및 적성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은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결과(정점숙 등, 2014; 조주연 & 전인희, 2018)를 지지한다. 따라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기 위해 학과과정에 심리교과과정을 개설하여 간호대학생이 자기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를 살펴보면, 간호교육 측면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수준과 이에 대한 영향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학과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진로정체감과 입학 시 전공만족도에 대한 영향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대학생활 초기 단계부터 진로정체감 형성을 위한 교육적 중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간호전문직관 및 진로정체감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이들 변인이 진로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상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은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및 간호전문직관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진로정체감의 영향 요인을 살펴본 결과 간호대학생의 입학 시 전공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규명되었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일 대학 간호대학생의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에 국내 간호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하며, 지역을 확대하여 다양한 연구대상자에게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2. 간호대학생의 입학 시 전공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이외에도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조사하지 않은 일반적 특성 및 다른 조직적 요인을 포함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3.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간호학과에 대한 홍보와 진로적성검사를 시행해보고, 간호학과에서는 심리교과과정을 개설하여 그 효과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중재 연구를 제언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고문헌

고영지, & 김인경. (2011).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7*(1), 62-71.

곽혜원. (2018).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좌절인내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6*(8), 233-242.

권윤희, & 김정남. (2002). MBTI를 활용한 성장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및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3*(2), 216-229.

김미원, & 박정모. (2017).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형성 관련 요인 경로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0), 347-362.

김봉환, & 김계현.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김영희, & 권영채. (2018). 간호대학생의 인지하는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이 간호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 *디지털융복합연구, 16*(2), 215-224.

김인숙, 손민정, & 박혜경. (2017).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이 진로자기조절,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2), 302-312.

김창희, & 김정이. (2019).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교육환경, 셀프리더십, 실습소속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5*(1), 5-16.

나우열, 이동혁. (2018). 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 유형화 및 특징 탐색. *상담학연구, 19*(2), 211-235.

박소영. (2018).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간호인력 수급 현황과 과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국융합인문학, 6(1), 31-54.

박연옥, 박수진, & 허정. (2017).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7*(2), 103-124.

박현정, 오. (2014).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 *디지털융복합연구, 12*(12), 417-426.

박희숙, 최동숙, & 김효춘. (2019).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관련요인에서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5), 93-101.

성지아, 방소연, & 김순이. (2012).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정체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인건강과학회지, 2*(2), 29-38.

안성미, & 김경희. (2018).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및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1), 555-565.

양선이. (2016). 간호 대학생의 자아 존중감과 의사소통능력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 학술대회, 2016*(5), 105-105.

양영옥, & 이선옥. (2012).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 *한국자료분석학회, 14*(2), 979-989.

양혜주. (2013). 전문대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문제해결능력에 관한 연구. *사고개발, 9*(3), 103-118.

엄미란, 김현숙, 김은경, & 성가연. (2010).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실습교육이 피하주사 간호수행능력,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및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과학회, 40*(2), 151-160.

오지현. (2014).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0), 873-884.

윤은자, 권영미, & 안옥희. (2005).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 개발. *한국간호과학회, 35*(6), 1091-1100.

이경희. (2010). 간호학생들의 무력감과—간호이미지 관계에서 임상실습만족도의 매개효과. *동서간호학연구지, 16*(1), 261-269.

이미라, & 김미자. (2018).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가 간호사로서의 직업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6), 197-208.

이석재, 장유경, & 한국교육개발원. (2003). *생애능력측정도구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이은정, 김효진, 박은비, 박주화, 정민주, & 정정희. (2018).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 263-278.

이화인. (2008). 간호대학생의 자존감 및 우울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2*(1), 97-107.

이훈진, & 원호택. (1995).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95*(1), 277-290.

정영미. (2018).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적응 및 전공만족도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8), 89-103.

정점숙, 정미조, & 유일영. (2014).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1), 27-36.

조주연, & 전인희. (2018).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폭력 경험, 자아존중감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건강학회지, 8*(1), 45-5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주영. (2012).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진로정체감. *Health & Nursing (구 간호과학), 24*(2), 23-30.

함연숙, 김화순, 조인숙, & 임지영. (2011). 졸업학년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전문직관 영향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7*(3), 536-544.

Heppner, P. P., & Krauskopf, C. J. (1987). An information-processing approach to personal problem solving.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5*(3), 371-447.

Holland, J. L., & Holland, J. E. (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5), 404.

Holland, J. L., Daiger, D. C., & Power, P. G (1980). My vocational situation: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Incorporated.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17, February 9). Survey on the status of hospital nursing staff placement. Retrieved from http://www.khna.or.kr/web/information/resource.php

Huh, B., & Kim, M. (2018). Relations Between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Identity Among Nursing Students in Course Applying Problem-Based Learning.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9*(6), 29-42. doi:10.22143/hss21.9.6.3

Iacobucci, T. A., Daly, B. J., Lindell, D., & Griffin, M. Q. (2013). Professional values, self-esteem, and ethical confidence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Nursing ethics, 20*(4), 479-490.

Lee, M., & Park, M. (2014). Sense of coherence and academic stres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2), 863-872.

Luo, R.-Z., Zhang, X.-H., Zhang, C.-M., & Liu, Y.-H. (2019). Impact of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learning attitude on problem-solving ability among Chinese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Frontiers of Nursing, 6*(2), 143-150.

Rosenberg, M. (1965). Rosenberg self-esteem scale (SES).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Tessema, M. T., Ready, K., & Yu, W. (2012). Factors affect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major curriculum: Evidence from nine years of data.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2), 34-44.

Yang, T.-Y., & Han, K.-S. (2010).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of Affecting Career Decision Making in the Science-Gifted Undergraduates.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20*(3), 921-94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 록

<부록 1>

제출 Ver.
1.0

연구대상자 설명문

■연구 과제명: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의 성명 및 직위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연구책임자	민지선	조선대학교	대학원생
공동연구자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 귀하는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의 대상자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 연구의 참여를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아래 설명문의 내용을 신중하게 읽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 연구는 귀하의 자발적인 참여로 수행될 것이므로, 이 연구와 관련 된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모든 질문을 해 주시고 충분히 답변을 받았다고 생각될 때 이 동의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귀하의 서명 후 연구자 또한 이 서식에 자필로 서명하고 해당 날짜를 기재한 후 복사본을 귀하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간호학과의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학생들이 간호교육과정에 보다 잘 적응하고 졸업 시 전문직 간호사로서 확신과 기대를 갖도록 돕기 위해 간호학생의 전공교육 만족도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진로정체감에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간호전문직관이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함입니다.

2. 연구 참여기간과 대략의 연구대상자 수(연구대상자의 수는 생략가능)

• 귀하는 본 연구를 위해 2019년 9월 중 15-20분 동안 설문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3. 연구대상자가 받게 될 각종 검사나 절차

• 해당사항 없음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실험군 또는 대조군에 무작위 배정여부 및 확률

- 해당사항 없음

5. 연구대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 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는 설문조사를 마쳐야 하며, 소요시간은 15-20분이다.

6. 기대되는 이익 및 연구 참여로 인해 받게 될 금전적 보상

-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으나, 모든 참여자에게 설문조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해 드립니다.

7. 연구대상자에게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위험이나 불편

- 연구 대상자의 개인시간이 할애될 것이며, 설문작성과 관련된 경미한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귀하는 언제든지 설문지 작성을 멈출 수 있습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 연구자는 본 학과의 2학년 과목의 실습조교이므로 본 연구대상자인 3,4학년과는 이익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문 참여를 중단하여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연구 참여와 관련된 손상 발생 시 연구대상자에게 주어질 보상이나 치료방법

- 해당사항 없음

9. 연구 참여로 인해 연구대상자가 부담해야 할 예상 비용

- 이 연구 참여에 따른 교통비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며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가 부담합니다.

10. 연구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중재

- 해당사항 없음

11. 연구 참여 결정은 자발적인 것이며, 연구도중 언제라도 중도에 참여를 포기할 수 있음

- 귀하는 연구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인 결정에 따라 연구에 참여하게 됩니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동의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참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연구 참가에 동의한 후에라도 자유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2. 개인정보가 보장되지만, 연구자를 포함하여 관련자에게 자료가 보여 질 수 있음

- 귀하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기밀유지가 되고 공개적으로 열람되지는 않습니다. 귀하께서 이 동의서에 서명함은 이러한 자료의 직접 열람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연구의 결과가 출판될 경우 귀하의 신원은 비밀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13. 연구와 관련한 새로운 정보가 수집되면 연구대상자에게 알려줌

- 연구 중 연구대상자의 안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연구대상자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4. 연구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및 해당 사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귀하는 귀하의 동의 없이도 이 연구의 참여로부터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구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음
  - 연구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

15. 생명윤리위원회 연락처

- 이 연구는 조선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승인하였으며 이 연구의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조선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전화 062-230-6690, Email: irb@chosun.ac.kr)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 2>

제출 Ver.
1.0

연구대상자 동의서

연구과제명 :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1. 본인은 위 연구에 대해 구두로 설명을 받고, 연구대상자 설명문을 읽었으며 이 연구를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2. 본인은 이 연구 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불이익)과 이득(혜택)에 관하여 들었으며,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언제든지 연구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연구의 참여를 중도에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5. 본인은 이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나의 개인정보가 현행 법률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6. 본인은 이 동의서 사본을 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구대상자:	(성명)		(서명)		(서명일)	년 월 일
법정 대리인(필요시)	(성명)		(서명)		(서명일)	년 월 일
동의서 설명자(필요시):	(성명)		(서명)		(서명일)	년 월 일
증인(필요시):	(성명)		(서명)		(서명일)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성명)	민지선	(서명)	민지선	(서명일)	2019 년 07 월 27 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 3>

설 문 지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현재 석사 학위논문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진로정체감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답해주시면 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본 연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모두 귀중한 연구자료가 활용될 것입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민 지 선
E-mail: mjscodes91@naver.com
H.P: 010-6786-6208
지도교수: 김 현 례

1. 연령: 만 _____세

2. 성별: ① 여 ② 남

3. 학년: ① 3학년 ② 4학년

4. 종교: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기타 _____

5. 진학동기: ① 취직이 잘 되어서 ② 성적에 맞추어서 ③ 타인의 권유
④ 가족의 희망 ⑤ 흥미 또는 적성에 맞아서 ⑥기타 _____

6. 대학생활 만족도: ① 만족한다 ② 보통이다 ③ 불만족한다

7. 입학 시 전공만족도: ① 만족한다 ② 보통이다 ③ 불만족한다

8. 현재 전공만족도: ① 만족한다 ② 보통이다 ③ 불만족한다

9. 학업성취도: ① 상 ② 중 ③ 하

10. 졸업 후 희망 진로: ① 종합병원 ② 공무원 ③ 보건교사 ④ 해외취업
⑤ 기타 _____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Ⅰ.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는 문항들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항목에 동그라미표를 하십시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	2	3	4	5
2	나는 좋은 자질(성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1	2	3	4	5
3	*대체로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4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1	2	3	4	5
5	*나는 잘 하는 것이 별로 없다.	1	2	3	4	5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7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1	2	3	4	5
9	*나는 때때로 내가 정말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	2	3	4	5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Ⅱ. 여러분은 수업시간에 풀어야할 문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문제, 가정에서 식구들과의 의견 충돌, 친구와의 말다툼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이 최근에 경험하였던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은 아래에 있는 행동들을 어느 정도 하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각각의 행동을 하는 정도를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하십시오.

번호	문 항	매우 드물게	드물게	보통	자주	매우 자주
1	내가 원하는 모습과 현지 모습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비교한다.	1	2	3	4	5
2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	1	2	3	4	5
3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한다.	1	2	3	4	5
4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1	2	3	4	5
5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안다.	1	2	3	4	5
6	고민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알기 위해 비슷한 상황에 대한 정보도 수집한다.	1	2	3	4	5
7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필요한 내용만 찾는다.	1	2	3	4	5
8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는다.	1	2	3	4	5
9	내 나름대로 정답을 생각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정보만을 찾는다.	1	2	3	4	5
10	나에게 친숙한 방법으로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는다.	1	2	3	4	5
11	여러 가지 자료 중에서 어느 자료가 문제해결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비교한다.	1	2	3	4	5
12	어떤 문제에도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는다.	1	2	3	4	5
13	나의 입장에서만 문제의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고려한다.	1	2	3	4	5
14	문제가 생기면, 내가 전에 경험해본 적이 있는 문제의 원인들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	1	2	3	4	5
15	수집된 정보들에 대해서 서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해 본다.	1	2	3	4	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번호	문 항	매우 드물게	드물게	보통	자주	매우 자주
16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내 의견과 다르더라도 먼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1	2	3	4	5
17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른 일들과 나의 문제를 연관시켜본다.	1	2	3	4	5
18	지금까지 생각해 본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를 살펴본다.	1	2	3	4	5
19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생각들도 중요하게 다룬다.	1	2	3	4	5
20	평소와는 달리 갑자기 떠오르는 새로운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한다.	1	2	3	4	5
21	친구와 다투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화해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1	2	3	4	5
2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한 방법들이 새롭고, 적절한 것인지를 서로 비교하여 본다.	1	2	3	4	5
23	여러 가지 문제해결방법들 중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우선순위를 정한다.	1	2	3	4	5
24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해결방법을 결정한다.	1	2	3	4	5
25	그 동안 사용했던 문제해결방법들이 노력한 만큼 도움이 되었는지 비교한다.	1	2	3	4	5
26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자세하게 정한다.	1	2	3	4	5
27	문제를 해결할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여 둔다.	1	2	3	4	5
28	현재 어느 정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한 계획을 세운다.	1	2	3	4	5
29	일정대로 계획을 추진할 때,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한다.	1	2	3	4	5
30	문제해결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을 구분한다.	1	2	3	4	5
31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하기로 정한 것은 끝까지 한다.	1	2	3	4	5
32	이전의 경험이나 해오던 방식과 다른 새로운 방법을 사용한다.	1	2	3	4	5
33	실패도 성공만큼 중요하게 여기며 문제를 해결한다.	1	2	3	4	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번호	문 항	매우 드물게	드물게	보통	자주	매우 자주
34	결과가 어떠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면 실제로 해본다.	1	2	3	4	5
35	지금 당장은 해결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얻는 것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본다.	1	2	3	4	5
36	지금은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나중에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1	2	3	4	5
37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한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를 중요하게 여긴다.	1	2	3	4	5
38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정말 잘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를 엄격히 따져본다.	1	2	3	4	5
39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본다.	1	2	3	4	5
40	처음 해결하려고 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확인해 본다.	1	2	3	4	5
41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실망하기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본다.	1	2	3	4	5
42	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과 이야기한다.	1	2	3	4	5
43	앞으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조언도 받아들인다.	1	2	3	4	5
44	나중에 문제를 해결할 때, 다른 사람의 충고에 따라서 나의 행동을 바꾼다.	1	2	3	4	5
45	나의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충고를 부탁한다.	1	2	3	4	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다음은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의 생각이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동그라미표를 하십시오.

번호	문 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	간호사는 환자를 위해 자신의 지식, 기술, 시간 등을 아낌없이 사용한다.	1	2	3	4	5
3	간호사는 환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1	2	3	4	5
4	간호사는 의사를 비롯한 타전문인들과 동료의식을 갖고 일함으로써 전문직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	2	3	4	5
5	간호사는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1	2	3	4	5
6	간호사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1	2	3	4	5
7	간호사는 박애정신을 지닌 성숙된 인격자로 보인다.	1	2	3	4	5
8	전문직업인으로서 간호사는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해 계속적인 자기 개발을 하고 있다.	1	2	3	4	5
9	간호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표현력과 리더십을 갖춘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다.	1	2	3	4	5
10	간호사는 대부분 훌륭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1	2	3	4	5
11	간호사는 복장과 외모를 볼 때 전문직업인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1	2	3	4	5
12	간호사는 타 직종과의 관계에서 전문인다운 업무처리의 능숙함과 인격적 성숙함을 보인다.	1	2	3	4	5
13	간호는 전문적인 직관력으로 환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보살펴주고 돌보아 주는 고유한 서비스이다.	1	2	3	4	5
14	간호사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므로 전문직업인다운 면모를 보여준다.	1	2	3	4	5
15	간호사는 병원 내에서 타 직종의 사람들로부터 전문인으로서 존중받고 있다.	1	2	3	4	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번호	문 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간호사는 병원 내의 타 직종의 전문인만큼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1	2	3	4	5
17	간호사는 환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주는 전문인다운 자질을 보여준다.	1	2	3	4	5
18	간호사는 전문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을 보여준다.	1	2	3	4	5
19	간호사는 전문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소명의식과 윤리정신이 투철한 모습을 보여준다.	1	2	3	4	5
20	간호는 의료체계 내에서 독립된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1	2	3	4	5
21	간호는 고유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2	간호는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동양철학적인 인(仁)의 개념, 즉 사랑의 정신으로 행해져야 한다.	1	2	3	4	5
23	간호는 고귀한 전문적인 업무로 인식되고 있다.	1	2	3	4	5
24	간호는 조직 내에서 각 직종 간에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전문적인 업무로 보이지 않는다.	1	2	3	4	5
25	간호는 한국적인 고유한 간호이론을 개발하면 의료개방 이후에도 경쟁력이 있는 유망한 의료서비스가 될 것이다.	1	2	3	4	5
26	간호직은 사회적 인식이 좋은 전문직업이다.	1	2	3	4	5
27	간호직은 전문직업적 파워를 발휘해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	2	3	4	5
28	간호는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지식과 기술로 인정되고 있다.	1	2	3	4	5
29	간호직은 조직내에서 인정받고 격려를 통해 만족스러운 정신적 보상과 충분한 대우를 받는 전문직업이다.	1	2	3	4	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 이 척도는 현재 여러분의 진로정체감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과 일치하는 곳에 동그라미표를 하십시오.

번호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다소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진로선택을 올바르게 했는가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2	나는 현재 간호학에 대한 나의 흥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3	나는 선택한 간호직업에 대해 잘 할 수 있는 확신이 없다.	1	2	3	4
4	나는 나의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1	2	3	4
5	간호직업은 내가 원하는 수준의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1	2	3	4
6	간호직에 대해 내가 어떤 종류의 진로정보를 탐색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1	2	3	4
7	나는 졸업 후 나의 진로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혼란을 느낀다.	1	2	3	4
8	나는 간호직업 선택에 관한 현재의 내 결정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확신이 없다.	1	2	3	4
9	나는 다양한 간호 진로 분야에 있어서 간호사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알지 못한다.	1	2	3	4
10	간호직업은 나에게 강한 매력을 주지 않는다.	1	2	3	4
11	나는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이 간호직인지 확신할 수 없다.	1	2	3	4
12	나는 내가 고려할 수 있는 직업이 현재 선택한 진로와 다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13	나의 능력이나 재능에 관한 나 자신의 평가는 해마다 다소 간의 변화가 있다.	1	2	3	4
14	일상적인 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 자신에 관하여 자신이 없다.	1	2	3	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 4>

RE: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자아존중감 척도에 대해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보낸사람 이훈진<hjlee83@snu.ac.kr>
받는사람 민지선<mjscodes91@naver.com>

제가 번안하기는 했으나 판권이 있는 것도 아니니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 좋은 연구 하십시오.

Hoon-Jin Lee, Ph.D.
Professor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Phone: +82-2-880-5997 Fax: +82-2-877-6428
E-Mail: hjlee83@snu.ac.kr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 5>

자료분류 : 일반문의 **게시자 :** 민지선 **등록일 :** 2019-06-26 **조회 :** 3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한 생애능력측정도구 중 문제해결능력 도구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도구 사용 문의드리며 혹시 사용해도 된다고 하면 원도구를 어떻게 보거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 생애능력측정도구 사용 문의입니다.

자료분류 : 일반문의 **게시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6-27 **조회 :** 1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도서실입니다.

우리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게시된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도구는
출처와 그 서지사항을 정확히 밝힌다는 조건에서 사용가능하십니다.

좋은 연구 성과를 기대합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 6>

[RE]안녕하세요.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보낸사람 권영미<ymkwon@kiwu.ac.kr>

받는사람 민지선<mjscodes91@naver.com>

일반 첨부파일 1개 (71KB) 모두 저장

PERMISSIONFORM 2019.pdf 71KB

반갑습니다.

첨부파일의 도구 **사용승인서를 2부** 작성하여
반송용 봉투와 함께
사용 승인서 하단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승인서 접수 후
KNPV Scale과 KNPV manual을 사용승인서와 함께
반송용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 7>

RE: 안녕하세요. 진로정체감 측정도구 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보낸사람 sengbira<sengbira@hanmail.net>

받는사람 민지선<mjscodes91@naver.com>

안녕하세요
수정한도구는
국회도서관 저의석사논문에 나와있습니다.
김봉환선생님의도구는
선생님이 찾으셔야하구요
좋은논문쓰시길 바랍니다
권윤희드림